

꿈과 존재 속에서의 깨어남

정화된 영혼의 신플라톤적 길

야세르 하산

아세르 하산

꿈과 존재

속에서의 깨어남

yhassa@gmail.com
2026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됨

모든 테우르기스트들에게, 특히 꿈의 테우르기스트들에게.
당신들은 참된 치유자이자 기적을 행하는 이들입니다.

서문 — 영혼의 꿈

시간이 계수되기 전, 별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 영혼은 순수한 빛의 영역에 거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하나와 여럿을 가르는 그림자가 없었고, 생각은 그것이 바라보는 대상과 분리되어 서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투명했으며, 각각의 이념은 신성한 정신 속에서 뻗어 나오는 한 줄기 광선이었다. 영혼은 자신을 그 빛으로 알고 있었고, 불꽃이 불 속에서 춤추듯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 빛과 함께 움직였다.

그러나 갈망이 깨어났다 — 미묘한 흔들림,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물음 하나: 빛을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게 영혼은 자신의 광휘가 비쳐 오는 모습을 보고자 하여 생성의 세계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은 숨을 입고, 몸을 입고, 시간 속으로 내려왔다. 영원한 한 번의 비전이었던 것은 순간순간 펼쳐지는 이야기 — 우주의 위대한 꿈 — 이 되었다.

여기, 물질과 사유의 끊임없이 변하는 형상들 속에서 영혼은 자신을 잊었다. 한때 온전했던 것의 파편들만을 보았고, 그것을 실재라 착각했다. 꿈을 꾸면서 그것이 꿈임을 믿지 못하는 이처럼, 희미하게 기억하는 아름다움을 찾아 수많은 형상들 사이를 떠돌았다. 현자들은 이 망각을 불순이라 부른다 — 도덕적 오염이 아니라, 신적 기억이 흐려진 상태로서.

그러나 모든 시대마다, 꿈속에서 반쯤 깨어나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삶의 빛남이 근원이 아니라 반영임을 느낀다. 아직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장막 너머의 무엇인가를 기억해 낸다. 철학은 바로 그 기억의 순간에서 시작된다 — 꿈꾸는 자가 꿈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각성은 사유를 통해 온다. 지혜에 대한 사랑(필로소피아)을 통해 영혼은 안으로 향하고, 영원한 형상들 가운데서 한때 보았던 것을 회상한다. 그러나 사유만으로는 고향에 이를 수 없다. 신성한 것은 지성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영혼이 신과 자신을 정렬시키는 성스러운 행위, 테우르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이 있다. 더 미묘하고, 더 고요한 문 — 깨어 있는 눈으로 자신의 꿈을 바라보던 고대인들에게 알려진 길이다. 잠 속에서 감각들이 잠잠해질 때, 영혼은 사슬을 느슨히 풀고 자신의 빛 안에서 여행한다. 현자들은 그 자유 속에서도 의식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꿈속에서도 신성을 만났다. 꿈에서 자각하는 것은 존재 자체에서 자각하는 것의 첫 번째 반영이기 때문이다.

정화의 길이란 두 번 깨어나는 기술이다. 첫째는 무지에서 지식으로, 둘째는 지식에서 직접적인 현존으로. 정화된 영혼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세계에서 깨어 있다는 뜻이다 — 각성의 세계, 꿈의 세계, 그리고 그 너머에서. 모든 형상 안에 깃든 신적 광휘를 보고, 그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책의 여정은 우리가 모두 잠들어 있는 그 꿈에서 시작된다. 이성, 덕, 자각적 인식, 그리고 테우르기의 수련을 통해 영혼이 상승하여 자기 자신의 심판 앞에 서고, 마침내 자신이 나왔던 그 빛과 다시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는 길을 따른다.

비록 우리는 분리의 꿈 속을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를 꿈꾸는 그 하나로부터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깨어남이란 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적 현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 하나의 살아 있는 환영으로서.

그리고 꿈꾸는 자가 참으로 깨어날 때, 세계 그 자체가 자각하게 된다.

목차

제 *I*부: 상승의 철학

제1장 — 영혼의 하강과 망각의 장막

꿈은 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빛 속으로 깨어나는 데서 시작된다. 영원한 것을 향하던 시선을 거둔 영혼은 시간이라는 거울 속에서 눈을 뜨고, 그 반영을 실재라 믿는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이 나왔던 고요를 잊는다. 별들, 산들, 흘러가는 나날들 — 이것들이 새로운 확실성이 된다. 그러나 앎의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다.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리고 더 잃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기억이다.

옛 현자들은 이 망각을 첫 번째 유배라 불렀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분리의 상태, 하나의 결과이다 — 존재와 앎 사이의 거리, 지식과 지혜 사이의 간극. 영혼이 바깥을 향해 있는 한, 한때 온전했던 것의 형상들만을 보게 된다. 아름다움에 손을 뻗지만 붙잡는 것은 그 그림자뿐이다. 진리를 찾지만 모아드는 것은 반사된 파편들이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떨리고, 사라진다.

그리하여 꿈은 더 깊어진다. 영혼은 변하는 세계를 떠돌며, 잠자는 이가 이미지들을 그러모으듯 경험들을 모은다. 각 삶, 각 기쁨, 각 슬픔은 의미의 장막이 되어, 가리면서도 드러낸다. 그러나 모든 장막 속에는 실재의 미광이 있다 — 형상 너머의 빛이 희미하게 비친다. 영혼의 과업은 꿈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어 자유롭게 신성을 기억하는 데 있다.

깨어남이란 곧 기억함이다.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회복하는 것이다. 가장 참된 의미에서의 기억이란 만물 안에 깃든 신적 질서를 인식하는 일이다. 영혼이 신을, 비록 희미하게라도 기억하는 순간, 꿈은 투명함으로 풀리기 시작한다. 세계의 형상들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미묘한 광채

로 빛난다. 잠자는 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움직임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 필로소피아, 영원한 것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행위. 이 세계의 어떤 것도 자신의 허기를 온전히 채울 수 없음을 느낀 영혼은 불멸의 양식을 찾기 시작한다. 한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음악 — 끊어지지 않았으나 희미해진 천구의 조화 — 에 다시 귀를 기울인다. 이 경청이 곧 정화의 시작이다. 신성을 기억함으로써 영혼은 환상에 대한 집착을 풀어 놓는다.

그러나 기억의 길은 길고, 꿈은 깊다. 그림자들은 소유, 쾌락, 자만을 속삭인다.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더 단단히 묶는다. 영혼은 빛과 번쩍임을, 움직임과 생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분별이 바로 각성의 첫 행위다. 모든 밝음이 태양은 아님을 아는 것. 심연 속에도 빛의 미광은 있다.

사유를 통해, 침묵을 통해, 참됨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통해 영혼은 흩어진 자신의 빛을 모은다. 수많은 형상들 아래 가려져 있던 신적 형상은 서서히 망각의 층들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연약한 새벽 — 꿈과 깨어남 사이의 경계이다. 철학은 길을 인도하지만, 여정을 움직이는 힘은 갈망이다.

정화시키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다 — 존재를 부여했던 그 빛을 향한 영혼의 그리움. 그리고 사랑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꿈은 계시를 향해 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강은 상승의 시작이 된다. 모든 추락, 모든 방황, 모든 어둠의 순간

은 고향으로 이끄는 길을 숨기고 있다. 영혼은 가장 깊은 잠 속에서도, 자신을 존재로 꿈꾸는 그 하나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정화이며, 새벽 이전의 첫 빛이다.

제2장 — 빛의 질서: 하나, 정신, 그리고 영혼

모든 현상 아래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질서 아래에는 통일성이 있다. 꿈조차도 그 근원의 패턴을 따른다. 영혼은 끊임없이 변하는 형상들 사이를 움직이지만 혼돈 속을 떠도는 것은 아니다. 나뉘어 보이는 모든 것은 비밀스럽게 하나의 샘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 만물의 숨겨진 심장, 하나(The One)로부터.

고대인들은 그것을 많은 이름으로 불렀다. 선, 절대자, 근원. 그것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다. 그것은 오지도 가지도 않으며, 사유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유가 관조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빛, 모든 진리, 모든 사랑, 모든 선한 것은 그 단순한 광휘의 반영일 뿐이다. 영혼은 장막 없이 그것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자기 본질 안에서 그 현존을 감지한다 — 하나는 영혼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로부터 신적 정신이 발출된다. 모든 진리의 형상이 담긴 영원한 조화. 정신 — 누스 — 는 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아는 앎이며, 살아 있는 이념들의 바다이다. 각각은 온전하고 빛난다.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형이 거한다.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움, 오염되지 않은 정의, 창조된 모든 것의 순수한 형식. 그 고요한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살아 있다. 변화는 시간에 속하지만, 이 정신은 시간의 그림자 너머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정신으로부터 영혼이 발출된다. 생명의 숨결, 영원과 생성 사이를 잇는 다리. 영혼은 신적 지성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바깥을 향해 돌아서며 이념에 운동을 입히고 그 반영에 몸을 부여한다. 영혼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다 — 세계로 흘러내려 모든 생명체의 살아 있는 흐름을 이루는 광대한 빛의 강. 각각의 개별 영혼은 그 강에서 떨어진 한 방울이며, 여전히 근원의 맛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는 신성으로부터의 타락이 아니라, 확장된 광휘이다 — 숨겨진 것이 드러나도록 빛이 그림자의 장으로 바깥을 향해 흘러나간 것이다. 그러나 그 확장 속에서 명료함은 흐려지고, 반영은 자신이 비추는 태양을 잊는다. 영혼은 자기 자신의 투사된 밝음에 매혹되어, 반사된 빛을 참된 빛으로 착각한다.

기원을 기억하기 위해 영혼은 다시 하나를 향해 돌아서야 한다. 그것은 세계로부터 도피함으로써가 아니라, 세계를 상징으로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눈이 맑다면 모든 형상은 문이 된다. 돌은 영속성을 드러내고, 나무는 성장을 드러내며, 얼굴은 사랑의 신비를 드러낸다. 관조를 통해 영혼은 이러한 표징들을 방해물이 아니라 신적 정신이 보내는 메시지로 읽는 법을 배운다.

시야의 순수성은 대응을 회복시킨다. 세계는 더 이상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 내적인 눈이 맑아질 때, 외적 세계는 투명해진다. 그때 지식은 사실을 수집하는 일이 아니라, 신성을 인식하는 일이 된다 — 모든 신적인 것 안에서 신을 보고, 신 안에서 모든 신적인 것을 보는 것이다.

영혼은 두 개의 광대함 사이에 서 있다. 위에는 창조되지 않은 빛이 있고, 아래에는 움직이는 영상이 있다. 위를 향하면 기억하고, 아래를 향하면 꿈꾼다. 영혼의 운명은 아래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밝히는 데 있다 — 더 높은 세계의 지혜를 형상의 영역으로 가져와, 마침내 물질마저 의미로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재의 구조이다. 하나가 다수로 내려가고, 다수가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과정. 그 원은 완전하다. 결국 모든 운동은 기억이며, 모든 여정은 신 자신의 사유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제3장 — 정화의 학(카타르시스)

빛으로 되돌아가는 모든 것은 먼저 맑아져야 한다.
정화란 영혼이 신을 바라보는 거울을 닦는 일이다. 빛은 한순간도 비추기를 멈춘 적이 없지만, 영혼의 표면은 자기 자신을 향한 회전에서 생겨난 안개 — 사유와 욕망과 자아의 불안한 김 — 로 흐려져 있다. 정화란 무언가를 더 하는 일이 아니라, 가리는 것을 제거하는 일이다.

첫 번째 불순은 혼탁이다 — 영원한 것과 덧없는 것을 뒤섞는 상태. 영혼은 자신이 빛임을 잊고 그림자에 집착한다. 그것은 “내 것”, “나”,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 말들 속에서 무한한 것은 작아진다. 그러나 어떤 얼룩도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그림자는 오해된 빛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화의 작업은 기억의 작업이다. 참된 것을 다시 알고, 실재를 반영으로부터 분별하는 일이다.

고대인들은 이 과정을 카타르시스라 불렀다 — 영혼이 투명함을 되찾는 정화. 그것은 덕에서 시작된다. 진리와 삶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절제, 용기, 지혜, 정의는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위에 새겨진 신적 질서의 기하학이다. 각각의 덕은 죄가 깨뜨린 비례를 회복시킨다. 덕스럽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하늘의 균형을 울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는 바깥의 문에 불과하다. 내적 정화는 영혼이 자기 자신을 응시할 때 시작된다. 관조의 침묵 속에서 영혼은 자신의 무질서를 본다 — 흩어진 사유, 욕망의 열병, 인식을 굳게 만드는 자만. 이를 부정 없이 마주하는 것이 첫 번째 강함이다. 영혼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매달린 채로는 상승할 수 없다. 안락함보다 진리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 수련을 통해 철학은 사변이기를 멈추고 약이 된다. 사유는 기억을 섬길 때 치유가 된다. 모든 통찰, 모든 자기 인식의 행위는 망각의 한 겹을 씻어낸다. 서서히 인간적 혼합물 속에서 내면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삶은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가장 순수한 사유조차 이원성에 묶여 있다. 이성은 빛을 가리킬 수는 있으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영혼은 더 높은 정화를 배워야 한다 — 지성의 정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정화. 이것이 테우르기의 시작이다. 기도와 상징과 침묵이 변형의 도구가 되는, 신적 질서에 대한 성스러운 참여이다.

테우르기 안에서 정화는 더 이상 영혼이 스스로에게 행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영혼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심장은 열리고, 신성은 자기 자신의 반영을 만나기 위해 내려온다. 인간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지만 부드러워져, 만물을 지탱하는 영원한 의지의 리듬에 자신을 맡긴다. 한때는 노력으로 보였던 것이 은총이 된다.

정화가 깊어질수록 시야는 변한다. 정화된 영혼은 더 이상 신성의 표징을 찾지 않는다. 모든 표징 안에서 신성을 보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속된 것은 없다.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눈 자체가 맑아지고, 그 맑음 속에서 세계는 변모한다. 정화된 영혼은 소유도 두려움도 없이 고요히 움직인다. 마치 빛이 인간의 형상으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정화는 끝나는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귀환 그 자체의 운동이다. 영혼은 진실의 모든 행위, 겸손의 모든 순간,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 닦인다. 고통조차도, 경외 속에서 받아들여질 때에는 찌꺼기를 태워 숨겨진 금을 드러내는 불이 된다.

그리고 모든 혼합이 벗겨지고, 하나로부터 처음 나왔던 그 단순함만이 남을 때, 영혼은 다시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언제나 그러했음을 — 꿈 속에 빛나고 있으나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무한한 빛의 순수한 한 줄기였음을.

제 *II*부: 영혼의 정화 — 약으로서의 철학

신적 기원을 기억해 낸 영혼은 이제 그 시야를 가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한다. 정화 없는 기억은 김이 서린 유리를 통해 보는 시선과 같아서, 빛을 엿볼 수는 있으나 아직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는 없다. 올바르게 실천될 때 철학은 사변이 아니라 약이다 — 영혼이 다시 실재를 볼 수 있도록 내적인 눈을 치유하는 의술이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테라페이아라 불렀다. 영혼을 돌보는 성스러운 기술. 플라톤은 철학을 "정신의 음악"이라 말하며, 불화로 갈라진 것을 다시 조화로 되돌리는 힘이라 보았다. 플로티노스는 이를 "고독한 자가 고독한 자에게로 날아오르는 비상"이라 불렀지만, 그러한 비상은 도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화에서 시작된다 — 신적인 것이 비칠 수 있도록, 신적이지 않은 것을 조용히 제거하는 작업에서.

정화는 거부의 행위가 아니라 정렬의 행위이다. 세계는 영혼의 적이 아니라 그 반영이며, 무질서는 상*(像)*이 자신의 근원을 잊을 때에만 생겨난다. 그러므로 정화의 작업은 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영혼이 맑아질 때, 빛은 왜곡 없이 그 안을 통과한다.

제1장 — 영혼의 약(이아트레이아 프쉬케스)

모든 참된 철학은 치유의 기술이다.
영혼의 병은 망각이다 — 부분이 전체 위에 군림할 때 생겨나는, 신적 비례의 상실. 그 혼란으로부터 정념들이 태어난다. 자만, 시기, 두려움, 소유에 대한 굶주림. 이것들은 외부에서 부과된 악이 아니라, 정렬이 어긋나며 생겨난 불협화음이다. 치유는 존재의 내적 조화 안에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

✦

플라톤은 철학자를 의사에 비유했다. 먼저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다음 진리의 수련을 처방하는 자. 지식은 약이며, 변증법은 그 방법이고, 덕은 회복된 건강이다. 올바로 안다는 것은 올바로 사는 것이고, 올바로 산다는 것은 우주와 조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신적 정신의 질서에 참여하는 상태이다.

✦

신플라톤주의자들은 무지(아그노이아)를 모든 고통의 뿌리라 가르쳤다. 영혼이 존재의 위계를 잊을 때, 더 낮은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자기 것이라 부른다. 철학은 기억을 통해 치유한다 — 모든 변화를 떠받치는 변하지 않는 원리들로 사유를 돌려세움으로써. 눈이 빛에 익숙해질수록, 영혼은 자신의 병을 그림자로, 그 치료를 진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

그러나 치유에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육체가 휴식과 리듬과 양분을 필요로 하듯, 영혼은 수련과 침묵과 관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영혼의 약은 삼중의 기술이다. 사유의 정화, 욕망의 질서화, 그리고 삶의 조화이다.

제2장 — 몸과 정신의 조화

고대인들은 영혼의 건강을 몸의 건강과 분리하지 않았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그리스의 격언이 말하듯, 병든 몸에서 얼마나 큰 오류들이 비롯되는지를 누가 모르겠는가? 몸은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그 도구이다 — 내적 조화를 표현하는 거문고와 같다.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느슨하면 음악은 흐트러지고, 올바르게 조율될 때 영의 선율은 막힘없이 흐른다.

✦

사모스의 현자 피타고라스는 식이, 리듬, 그리고 척도가 철학의 첫걸음이라 가르쳤다. 그는 몸을 수의 신전이라 불렀다 — 비례에 의해 유지되는 구조물로서.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은 천구의 음악을 모방하는 일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모든 것에서 절제를 실천했다. 말, 수면, 움직임, 음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류의 과도함도, 심지어 사유에서조차, 관조가 가능해지는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

피타고라스 학파의 식이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영양 속에 구현된 성스러운 기하학이었다. 그들은 미신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일체성에 대한 경외로 동물의 살을 삼갔다. 살아 있는 것을 소비하는 것은 영혼을 생성의 수레바퀴에 더욱 묶어 두는 일이기 때문이다. 음식의 단순함과 호흡의 순수함을 통해, 그들은 영의 탈것을 가볍게 하고 신적 유입에 더욱 민감해지기를 바랐다.

✦

그러므로 정화는 척도에서 시작된다 —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

한 절제에서. 고요하고 균형 잡히며 깨끗한 몸은, 빛을 담는 맑은 그릇처럼 영혼에 투명해진다. 몸의 질서를 소홀히 하는 철학자는 자신의 도구를 흐리게 하고, 몸을 숭배하는 자는 연주자를 잊는다. 지혜로운 이는 둘을 모두 비례 안에 두며, 하나의 조화가 다른 조화를 지탱함을 안다.

제3장 — 사유의 치유

영혼의 무질서는 먼저 사유 안에서 드러난다 — 흩어지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마음의 운동 속에서. 참되게 생각한다는 것은 가 intelligible 세계의 질서를 기억하는 것이며, 거짓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의견을 지식으로 착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변증법은 탐구이자 정화이다. 그것은 의사가 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 오류를 제거한다.

✦

사유의 치유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진리는 추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론의 소음이 멈출 때 드러나기 때문이다. 플로티노스는 가장 높은 지성은 논증하지 않고 본다고 가르쳤다 — 말의 매개 없이 영원한 이념들을 직접 관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야는 이성의 수련을 통해 준비되어야 한다. 올바른 질문, 자기 자신을 향한 내적 대화를 통해 마음은 스스로를 넘어서는 길로 정화된다.

✦

영혼이 사유의 그림자들을 쫓는 일을 멈추고 사유의 근원으로 방향을 돌릴 때, 더 깊은 고요를 발견한다. 이념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각각의 통찰은 이해의 음악 속 한 음이 된다. 그때 철학자는 더 이상 진리를 논쟁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지성의 참된 카타르시스이다.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을 회복하는 것. 치유된 마음은 물처럼 맑아져 — 왜곡 없이 하늘을 비춘다.

제4장 — 욕망의 수련

사유는 정화될 수 있으나, 욕망은 여전히 영혼의 불이다. 그것이 인도 없이 타오르면 소모하고, 질서 속에 놓이면 비춘다. 그래서 플라톤은 에로스를 상승의 사다리라 불렀다 — 세계의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 그 자체로 영혼을 들어 올리는 갈망으로서.

✦

욕망은 소유를 추구할 때 불순해지고, 참여를 추구할 때 순수해진다. 낮은 사랑은 붙잡고, 높은 사랑은 관조한다. 하나는 얽매고, 다른 하나는 해방한다. 그러므로 욕망의 정화는 억압이 아니라 변용이다 — 에너지를 신성을 향해 다시 돌리는 일이다. 영혼을 노예로 만드는 바로 그 힘이, 위를 향해 돌려질 때에는 날개가 된다.

✦

욕망의 수련은 절제(소프로쉬네)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내적 불꽃을 이성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덕이다.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남으로 이어진다 —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 것이다. 선을 통해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영혼은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올바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다.

✦

정념이 고요해질 때, 심장은 빛을 띤다. 그것은 더 이상 반영을 사랑하지 않고, 그 반영이 흘러나온 빛을 사랑한다.

제5장 — 심장의 침묵

사유가 치유되고 욕망이 변모하면, 영혼은 침묵의 성소로 들어선다. 이것은 공허의 침묵이 아니라, 말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충만의 침묵이다 — 그 고요 속에서 영혼과 신성은 하나의 울림으로 공명하기 시작한다.

✦

플로티노스는 이를 영혼이 다수성에서 통일성으로 물러나는 것이라 묘사했다. 그것은 세계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로 만나는 중심으로의 귀환이다. 그 고요한 한 점에서 기도는 현존이 되고, 현존은 시야를 낳는다. 심장은 더 이상 찾지 않고, 보기 시작한다.

✦

이 침묵은 최고의 약이다. 그것은 분리의 환상을 녹여 없앰으로써 치유한다. 정화된 영혼은 자기 자신 안에 머물며, 그 깊은 곳을 흐르는 하나의 흐름을 느낀다. 이 자각 속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그분의 현존 안에 사는 것과 같다 — 깨어 있고, 고요하며, 빛나는 상태로.

제6장 — 자각몽을 위한 실천적 관조

꿈 속에서 깨어나는 영혼

“위와 아래가 같고, 꿈과 깨어 있음도 그러하다.
동일한 정신이 둘 모두를 가로지르며, 스스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 익명의 피타고라스 학파 단편

플라톤적 의미에서의 자각몽은 잠의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철학이다.
감각이 잠잠해질 때 영혼은 자기 자신의 빛 안에서 움직인다. 정화되고 주의 깊다면, 그곳에서도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관조들은 통제의 기술로서가 아니라 기억의 의례로서 제시된다 — 영혼이 자기 빛 안에서 깨어나고, 빛을 기억하도록 돕는 실천적 상징들이다.

호기심이나 허영을 동반하지 말고, 오직 존재의 모든 상태에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고요한 열망만을 지녀라.

철학자의 준비

(피타고라스적 성향)

이 내적 수련에 다가가기 전에, 외적 삶이 먼저 비례 속에 놓여야 한다.

1. 식이와 척도

고대인들은 모든 영양에 절제를 권했다.

태양을 향해 자라는 음식 — 곡물, 과일, 채소 — 을 택하고, 감각을 무겁게 묶는 것은 피하라.

동물의 고기는 삼가라. 그것은 미세한 지각을 둔화시키고 영을 필연성에 묶는다. 때로는 비늘 있는 물고기 정도만 허락된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신성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라.

맑은 몸은 영혼을 위한 투명한 거울이다.

2. 삶의 조화

휴식과 기상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신성을 기억하는 일로 열고 닫아라.

분노나 방종을 품은 채 잠들지 말라. 영혼은 삶에서 풀지 못한 것을 꿈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3. 의도

잠을 망각이 아니라 내적 성소로 다가가라.

자리에 들기 전, 곧 상징으로 진리가 드러나는 꿈의 영역에 들어갈 것임을 상기하라.

목표는 도피가 아니라 명료함이다.

상징의 관조

1. 상징의 선택

습관에 묶이지 않은 장소나 사물을 택하라 — 고요하고, 조화로우며, 내적으로 빛나는 것.

정원의 외딴 벤치,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돌, 단순한 아름다움을 지닌 색 있는 물체, 혹은 이 목적만을 위해 직접 만든 공예품도 좋다.

그것이 경외와 신성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하라.

비밀로 간직하라. 신성한 것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2. 연결의 확립

선택한 장소에서, 혹은 상징 앞에서 평소와는 다르지만 편안한 자세로 앉라

다음의 말을 각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적으로 반복하라.

“내가 다시 이 형상을 보게 될 때,

나는 꿈꾸고 있음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영혼의 비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리라.”

이 말들을 명령이 아니라 서원으로서, 심장에 가라앉게 하라.

3. 감각의 포화

몇 분간 그 장소나 사물을 관조하라.

색, 질감, 비례, 향기, 그것을 감싸는 공기를 느껴라.

지각이 하나로 모이고 고요해질 때까지 그 조용한 질서를 느껴라.

그 고요 속에서 그 상징을 신적 현존과 결부시켜라.

그것은 깨어 있음과 꿈 사이의 문이다.

4. 감각의 시험.

하나에 대한 기억을 유지한 채, 형상의 경계가 사유에 응하는 모습을 부드럽게 상상하라.

손이 물질을 통과하고, 색이 깊어지거나 변하며, 움직임이 의지에 따라 멈추는 모습을.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영혼이 감각의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주

는 표징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깨어 있음이고, 형상이 사유에 응하면 꿈 안에 있다.

어느 쪽이든 경이로움이 아니라 인식 속에 머물러라.

5. 연합의 봉인

마무리로 조용히 다음을 확언하라.

“이 장소에서, 혹은 이 상징 앞에서,
나는 모든 세계가 하나에 응답함을 기억한다.
여기서 나는 꿈 속에서 깨어난다.”

이 생각을 지닌 채 떠나라.
그것은 의식을 잠의 문턱 너머로 이끌 황금 실이다.

잠에 들기

침상에 누워 몸을 편안히 쉬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라.
선택한 상징을 떠올려라 — 분명히 보고, 그 현존을 느끼며, 서원을 기억하라.
내적으로 다음을 반복하라.

“나는 꿈 속에서 이 장소를 보리라.
나 자신을 영혼으로, 꿈을 형상으로 기억하리라.
나는 비전 속에서 깨어나, 그것을 신성께 바치리라.”
말들이 침묵으로 사라지게 하고, 부드럽게 잠으로 내려가라.

곁에 기록장을 두고, 깨어나자마자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적어라 — 사건뿐 아니라 인상, 색, 감정까지.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들은 자신의 기하학을 드러내고, 너는 너 자신의 상징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꿈 속에서 읽는 수련

자각에 이른 이들을 위해 더 깊은 수련이 있다 — 글자를 읽는 일이다.

꿈 속에서 문자와 형상은 물처럼 흔들리는데, 이는 낮은 정신이 아직 가intelligible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꿈에서 읽는다는 것은 사유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 형상의 세계 안에서 누스를 깨우는 것이다.

1. 깨어 있을 때, 순수한 흰 표면 — 종이나 판 — 을 선택하고, 덕을 나타내는 단순한 한 단어와 연결하라. 선, 빛, 사랑.

조용히 바라보며 기억에 새기고, 명료함의 표식으로 곁에 두어라.

2. 잠에 들며, 그 페이지 위의 단어를 시각화하라. 각 글자는 빛나고 안정되어 있다.

형태뿐 아니라 그 의미가 심장에 머물게 하라.

3. 꿈 속에서 자각했을 때, 그 페이지를 떠올려라.

단어가 네 앞에 나타나게 하라.

붙잡지 말고 관조하며, 각 글자를 천천히 읽어라.

글자가 변하면 다시 시작하라 — 형상의 불안정은 영혼 자신의 움직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단어가 머무를 때, 명료함은 완성된다.

이 수련은 미묘한 몸 안에서 이성의 원리를 깨운다.

그때 꿈은 지성에 투명해지고, 잠자는 이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바라보게 된다.

목적

이 관조들을 통해 철학자는 모든 세계에서 의식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 몸 안에서 깨어 있고, 꿈 속에서 깨어 있으며, 영 안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자각몽은 정화의 한 갈래가 된다.
지각의 치유, 움직이는 삶의 영상 안에서 신적 질서를 기억하는 일.

영혼이 꿈을 꿈으로 알아볼 수 있을 때,
세계 또한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인식이 곧 지혜의 여명이다.

☀

에필로그 — 빛의 문턱

영혼의 거울이 맑아질 때, 그 안에 비치는 빛은 더 이상 먼 것이 아니라 내재하는 것이 된다. 철학자는 치유된 자가 되며, 의사는 치유된 환자로 변모한다. 그러나 정화는 끝이 아니라 리듬이다 — 기억의 물로 지각을 끊임없이 씻어 내는 순환이다.

마지막 정화는 내려놓음이다 — 정화된 자아마저 놓아 버리는 일. “나는 정화되었다”고 말하는 한, 이원성은 남아 있다. 영혼은 신성이 완전히 감지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져야 한다. 그때 앎과 아는 자는 하나의 비전 속에서 녹아 사라지고, 고대의 말씀이 성취된다.

“너 자신을 알라 — 그러면 너는 네 신을 알게 되리라.”

이로써 상승의 두 번째 운동은 마무리된다.
약으로서의 철학을 통해 맑아진 영혼은 이제 더 높은 신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 사유가 빛이 되고, 존재가 예배가 되는 성스러운 참여를 향하여.

제3부: 신행(神行, 테우르기아) — 성스러운 행위와 신적 합일

△

제1장 — 테우르기아의 기원과 의미

정화를 통해 영혼이 고요해지면, 그 침묵 속에서 더 높은 힘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한때는 노력이던 것이 이제는 경청이 되고, 상승이던 것이 초대가 된다. 이것이 바로 테우르기아의 문턱이다 — 영혼과 신성이 하나로 작용하는 성스러운 행위.

△

테우르기아는 의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겸손에서 비롯된다. 어떤 필멸의 정신도 지성만으로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간극을 건널 수 없다는 인식에서 태어난다. 영혼은 자신의 거울을 닦을 수는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빛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다. 테우르기아란 은총의 강림 — 영혼의 기억에 대한 신의 응답이다.

△

고대인들은 테우르기아를 “신적 작용”이라 불렀다 —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들의 일로서. 그러나 하늘에서 서로 다투는 수많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의 빛이 여러 광선으로 굴절될 뿐이다. 이 성스러운 예술의 상징과 찬가, 소환은 하늘을 조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참여의 행위이다. 그것은 영혼이 결코 멈추지 않고 흐르는 영원한 조화에 스스로를 정렬시키는 몸짓이다.

테우르기아의 본질은 형상으로 번역된 사랑이다. 기도하고, 관조하고, 봉헌하고, 흠숭하는 일은 서로 분리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 지닌 다양한 표현이다 —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영혼의 움직임. 모든 진실한 기도는 테우르기아적 행위이다. 그것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갈망과 성취의 하나의 흐름 속으로 끌어모은다.

△

그러나 참된 테우르기아는 마음의 정결을 요구한다. 상징은 살아 있는 다리이며, 불순한 영혼은 그 위를 건너며 반영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덕과 관조의 준비된 삶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토대이다. 신성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고요한 곳에만 머문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테우르기아란 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

우주 자체가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테우르기아이다. 매일의 해돋이, 심장의 박동 하나하나, 모든 탄생과 죽음은 신적 운동의 의식이다. 정화된 인간 영혼은 그 우주적 전례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더 이상 세계의 파편으로서가 아니라, 창조의 찬가 속에 울리는 하나의 목소리로서. 꿈은 예배가 되고, 삶은 기도가 된다.

제2장 — 테우르기아 수행의 단계들

성스러운 길은 세 가지 운동으로 펼쳐진다. 영혼은 상징 안에서, 영(靈) 안에서, 그리고 침묵 안에서 신성을 만나는 법을 배워 간다.

1. 물질적 테우르기아 — 형상의 성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상징이다. 가장 단순한 행위 — 경건함 속에 밝히는 불꽃, 축복 속에 붓는 물, 찬미로 발화되는 한 마디 말 — 은 의식을 동반할 때 성스러워진다. 물질적 테우르기아는 영혼이 물질 안에서 신성을 보도록 가르치며, 창조의 거룩함을 회복시킨다. 한때 산만함의 도구였던 감각은 기억의 통로가 된다.

촛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지로 인식된다 — 불은 신적 지성의 반영이며, 빛은 현존의 표지이다. 아름다움, 소리, 리듬, 몸짓을 통해 흩어져 있던 영혼의 힘들은 조화 속으로 모인다. 외적인 행위는 내적인 시야를 훈련시킨다.

△

2. 심령적 테우르기아 — 살아 있는 현존의 소환

형상이 투명해질 때, 영혼은 영의 영역을 향해 내면으로 돌아선다. 여기서 신성의 이미지들은 살아 있는 힘이 된다 — 천사들, 지성적 존재들, 혹은 자신의 더 높은 본성을 인도하는 다이모니온, 즉 내적 음성으로서. 영혼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 빛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의도, 겸손, 헌신이다.
심령적 테우르기아는 친교이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들어 올려지고, 은총에 의해 맑아짐을 느낀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상상이 아니라, 실재에 참여하는 성스러운 상상력이며,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실재이다. 이제 상징들은 응답하기 시작한다. 불꽃은 반응하고, 침묵은 진동한다. 인

간과 신성은 함께 호흡하기 시작한다.

△

3. 지성적 테우르기아 — 상징을 넘어선 합일

마침내 영혼은 형상과 이미지를 넘어 신적 정신의 순수한 자각으로 상승한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소환이 없다. 현존과 기도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신은 더 이상 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된다. 이것이 모든 테우르기아적 행위가 가리키는 고요한 성취이다 — 영혼이 그 기원으로 회복되는 일, 이원성을 넘어선 빛나는 단순성이다.

지성적 테우르기아는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정화된 영혼은 신적 자각의 도관으로서 세상을 가로질러 움직인다. 모든 행위는 성스러워지고, 모든 순간은 영원을 투명하게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

△

제3장 — 다이몬과 인도하는 영

영혼과 신 사이에는 살아 있는 다리가 서 있다. 그것이 바로 다이몬이다 — 영혼의 연약함과 그 안에 깃든 신적 형상을 모두 아는 수호의 영. 고대인들은 이를 태어날 때 주어진 동반자라 불렀으며, 맡겨진 영혼을 결코 떠나지 않는 침묵의 스승으로 여겼다.

△

세계라는 꿈 속에서 다이몬은 종종 직관을 통해, 우연을 통해, 양심의 목소리를 통해 말한다. 그것은 이성이 망설일 때 참된 것을 속삭이는 미묘한 인도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신적 질서에 대해 귀가 멀어지는 것이며,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에게 정해진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 걷기 시작하는 일이다.

△

영혼이 정화될수록 다이몬은 더 가까워지고, 그 언어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것은 명상 속에서, 환시 속에서, 낯선 빛으로 빛나는 꿈들 속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환상이 아니라 상응이다 — 내면과 외부 세계가 맞물리는 순간들이다. 과제는 그 비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 목소리의 음조를 배워, 마침내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와 구별되지 않게 될 때까지.

△

다이몬과 조율된다는 것은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다. 곧, 신성이 특정한 영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로 선택한 고유한 방식이다. 아무리 소박한 삶이라도, 각 삶에는 그 수호자만이 아는 하나의 패턴이 담겨 있다 — 창조의 화성을 완성하는 하나의 음. 정화된 영혼은 다른 이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과 공명한다. 그 기쁨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밀스러운 질서에 순종하는 데 있다.

△

궁극적으로 다이몬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너머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영혼이 매개 없이 볼 수 있을 만큼 순수해지면, 다이몬은 해가 떠오르기 전의 새벽처럼 물러선다. 한때 상징으로 갈라져 있던 인간과 신성은 이제 현존 안에서 하나가 된다. 영혼은 자신이 따랐던 것이 결코 참으로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 속에 비친 신의 빛이었기 때문이다.

제4부: 자각몽과 밤의 신행(테우르기아)

제1장 — 영혼의 거울로서의 꿈

몸이 잠들면 감각은 물러나고, 영혼은 자기 자신에 더 가까이 선다.
그 내면의 고요 속에서 이미지들이 깊은 곳으로부터 떠오른다 — 그것들은 무작위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자기 삶의 반영이다. 모든 꿈은 영혼이 깨어 있을 때는 아직 마주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울이다.

무지한 자는 꿈을 환영으로 취급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상징을 통한 계시로 받아들인다. 꿈은 영혼의 기만이 아니라 그 언어이다.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은 그림으로 번역된 진리다. 밤에 찾아오는 모든 형상, 모든 빛, 모든 목소리는 하나의 가르침을 지닌다.

그러나 이 표징들을 읽을 수 있는 이는 드물다. 외적 세계가 물질 아래 신성을 가리듯, 꿈 또한 이미지 아래 그것을 가리기 때문이다. 꿈을 올바로 해석한다는 것은 환상의 표면을 넘어서 그것이 표현하는 움직임을 바라보는 일이다. 꿈속의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문턱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욕망은 유혹이 아니라 영혼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시도이다.

영혼이 정화될수록 꿈은 더욱 빛을 띤다. 혼돈은 조화로, 어둠은 광휘로 바뀐다. 그러한 꿈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혼란 속을 헤매지 않고, 직접 가르침을 전하는 살아 있는 상징들 사이를 걷는다. 신전, 별, 샘 — 이것들은 마음의 발명이 아니라, 잠의 반명 속에서 인식되는 영원한 실재의 반영이다.

꿈의 가장 높은 형태에서, 영혼은 자신의 수호자를 만난다 —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인도해 온 침묵의 동반자, 다이몬을. 그 만남 속에서 깨어 있음과 잠듦은 서로 스며들고, 꿈은 환시가 된다. 영혼은 의식이 낮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배우기 시작한다. 매 밤이 하나의 입문이며, 죽음을 예행하는 연습이자 불멸을 상기시키는 표지임을 깨닫는다.

제2장 — 자각몽과 잠 속에서의 깨어남

영혼의 여정에는, 아직 꿈꾸는 가운데 깨어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영혼은 내면의 세계 안에서 눈을 뜨고, 자신이 잠든 자이자 꿈꾸는 자임을 안다. 이것이 곧 자각(루시디티)이다 — 환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의식이 그것을 비추는 상태.

자각몽은 심리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수행이다. 그것은 의식이 환경에 속박되지 않음을 드러낸다. 꿈속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정화된 영혼의 자유를 미리 맛보는 일이다. 강요 없이 행동하고, 왜곡 없이 보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자유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두 번째 깨어남”이라 불렀다. 이는 정화의 참된 과업이 꿈에서 벗어나는 데 있지 않고, 꿈 안에서 깨어나 그것을 초월하는 데 있음을 가르친다. 밤을 빛으로 바꾸는 그 동일한 의식은 삶 자체를 우주적 규모의 찬가로 바꿀 수 있다. 세계란 무엇인가 — 그것은 신적 정신이 함께 꾸는 거대한 꿈이 아니겠는가?

자각을 수행한다는 것은 가장 가려진 상태 속에서도 신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것은 잠을 가로지르는 기도이며, 시야로 정제된 사유이다. 영혼이 밤의 통과 속에서도 기억을 붙든다면, 신적 현존의 항구성을 엿보기 시작한다. 낮과 밤의 경계는 흐려지고, 삶은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앎의 행위가 된다.

그러나 자각은 지배가 아니라 봉사이다. 자각한 영혼은 꿈을 조작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에 응답한다. 장면 속의 침묵한 인도를 듣고, 그 의미에 순종하며, 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마지막 섬세한 손길을 더한다. 모든 상징은 말하고, 모든 움직임은 계시한다. 영혼은 성소를 걷는 자처럼 조심스럽게 나아간다. 진실로, 모든 꿈은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 받아들여지거나, 보내어지는 기도.

제3장 — 임사(臨死) 혹은 죽음에서의 심판

그러나 모든 상승에는 저울에 오르는 순간이 있다 — 빛 앞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고요한 헤아림이다.

정화된 자가 자신의 개인적 다이몬과 함께 시간과 영원의 경계에 다가설 때, 천둥 같은 선고는 없다. 대신 깊고 내적인 앎이 찾아온다. 영혼은 살아 있는 거울에 비친 듯, 완전한 명료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숨겨진 것은 없고, 정죄되는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드러날 뿐이다. 조화롭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실재의 화음을 견딜 수 없기에,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베일의 거둠이다 — 척도의 온화한 회복이다. 모든 생각, 모든 행위, 모든 욕망은 신적 질서의 저울 위에서 자신의 참된 무게를 드러낸다. 영혼은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느끼고, 그 공명에 따라 제자리를 향해 이끌린다. 어떤 이들은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이들은 보다 부드러운 형상의 베일 속에서 정화를 이어가며, 또 다른 이들은...

정화된 영혼은 이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 안다. 순수한 자에게 빛이란 무엇인가 — 귀향이 아니겠는가? 영혼은 자신의 신이 결코 부재하지 않았음을, 자신의 모든 생성의 단계마다 침묵 속에 거하고 있었음을 인식한다. 그것이 “심판”이라 불렸던 것은 다름 아닌 인식이었다 — 영혼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이해하게 된다 — 신은 여정 너머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행자 안에 있었으며, 모든 걸음을 자신을 향해 빚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꿈꾸는 자는 깨어나고, 꿈은 성스러운 형상으로 알려진다. 영혼은 빛나고 온전한 상태로 안식에 들어가며, 더 이상 노력으로 움직이지 않고 조화에 의해 움직인다.

제5부 — 정화된 영혼의 실현

제1장 — 하나로의 귀환

마지막 베일이 떨어지고, 모든 탐구가 고요해질 때, 영혼은 처음 나왔던 그 빛 앞에 선다.
망각과 기억을 지나고, 그림자와 환시를 통과하며, 침묵과 불, 신적 심판을 거쳐 마침내 깨닫는다. 자신이 찾아 헤매던 것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음을 — 신의 명료함 속에서 보인 자기 자신이었음을.

⊙

하나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한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에는 더 이상 거리가 없다. 사유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일을 멈춘다. 사유는 이미 그 목적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정화된 영혼은 더 이상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 — 그것을 발산한다. 그것은 논증으로 알지 않고, 동일성으로 안다. 물방울이 바다에 녹아들 때 바다를 아는 것처럼.

⊙

이 귀환은 세계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세계의 변모이다. 한때 유배로 여겨졌던 우주는 이제 신적 현존의 끊임없는 흘러넘침으로 드러난다. 모든 존재는 동일한 영원한 태양의 한 줄기이며, 모든 순간은 동일한 영원한 지금의 한 국면이다. 영혼은 물질을 버리지 않는다 — 물질을 영광의 그림자로 본다.

⊙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핍을 채우려는 갈망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고요한 사랑으로. 모든 운동과 모든 다수성, 모든 분투는 하나의 존재의 맥박으로 해소된다 — 정지해 있으면서도 살아 있는 중심으로. 영혼은 그 단순성 안에서 안식하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제2장 — 깨어 있음과 꿈의 합일

영혼의 완성된 시야 안에서는 더 이상 깨어 있음과 꿈 사이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낮과 잠은 하나의 의식의 연속체가 되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기도가 된다. 정화된 영혼은 모든 상태에서 자각하며,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나 동일한 현존에 깨어 있다.

⊙

이것이 위대한 화해이다 — 의식 자체 안에 있던 분열의 치유. 깨어 있는 마음이 "현실"이라 부르는 것과 꿈꾸는 마음이 "상상"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의 빛의 서로 다른 농도로 보인다. 형상의 세계와 이미지의 세계는 모두 동일한 신적 의식 안에서 솟아난다. 더 낮음과 더 높음은 없고, 오직 영원에 대한 참여가 더 투명하거나 덜 투명할 뿐이다.

⊙

이러한 합일 속에서 영혼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로 된다. 사유는 환시가 되고, 행위는 봉헌이 된다. 잠은 더 이상 망각이 아니라 친교이다. 육체마저도 빛을 띠며, 그 안에 깃든 영의 고요한 리듬에 순응한다.

⊙

이 경지에 이른 이는 세상을 성스러운 꿈 속을 걷듯 부드럽게 지나간다. 모든 움직임에 신의 서명이 새겨져 있기에,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다. 고통조차 변형으로 보이고, 죽음마저도 더 밝은 영역으로의 깨어남으로 인식된다.

⊙

자각한 영혼은 두려움 없이 산다. 꿈꾸는 자와 꿈이 하나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디를 보든 동일한 광휘를 본다 — 만물을 관통해 빛나는 비밀스러운 빛을.

제3장 — 빛이 된 영혼

마침내 더 이상의 여정도, 더 이상의 상승도, 영혼과 그 근원 사이의 구분도 사라진다.
정화된 자는 언제나 그러했음을 실현한다 — 빛 안의 빛이었음을.

⊙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성취이다. 자아의 상실이 아니라, 신적 투명성으로서의 자아의 계시이다. 영혼은 빛나려는 생각 없이 빛나고, 노력 없이 행하며, 한계 없이 사랑한다. 그것은 세상 속을 흐르는 신의 뜻이 담긴 그릇이 되었다.

⊙

지혜로운 이들은 이 상태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설명될 수 없고, 오직 살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상을 넘어선 평화이며, 감정을 넘어선 기쁨이고, 지식을 넘어선 앎이다. 이 고요함으로부터 모든 자비의 행위, 모든 아름다움의 창조, 모든 조용한 진리의 몸짓이 흘러나온다. 순수한 영혼은 근원과 하나이기에, 세상이 치유되는 통로가 된다.

⊙

분리의 꿈은 끝났다. 원은 완성되었다.
한때 환영 속을 방황하던 영혼은 이제 실재의 고요함 속에서 쉰다. 모든 대립은 화해되고, 모든 거리는 지워진다. 오직 빛만이 남는다 — 한계 없고, 현존하며, 영원한 빛.

그리고 그 무한한 단순성 속에서, 영혼은 다시금 최초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기원의 속삭임을:

“있어라”

에필로그 — 영원의 전례

마지막 상승 너머에는 소멸이 아니라, 그림자 없는 참여가 있다.

정화와 신적 작용을 통해 온전해진 영혼은 더 이상 위로 오르려 애쓰지 않는다 — 그것은 하늘의 리듬 안에 머문다. 한때 상승이었던 것은 현존이 되고, 한때 상징이었던 것은 계시가 된다. 위와 아래의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빛의 위계로 보인다. 각 단계는 자기 고유의 광휘로 빛나고, 모든 움직임은 하나로의 귀환을 노래하는 찬가가 된다.

이 질서 안에서 영혼은 자신의 영원한 거처를 발견한다. 그것은 신의 빛들 가운데 서되, 그 안에 소멸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 빛들과 동족인 빛나는 존재로 선다. 그 개별성은 더 이상 분리가 아니라, 우주적 화성 안의 음조가 된다 — 무한이 스스로를 시간 속에 노래할 때 울리는 고유한 음이다.

여기서 앎은 예배가 되고, 예배는 존재가 된다. 정화된 영혼은 하늘의 고요한 신술사로서 우주를 가로지르며, 만물을 지탱하는 신적 의지와 자신의 의지를 결합한다. 별들은 더 이상 먼 불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유이며, 빛은 더 이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자신의 빛 안에 있다.

그러나 이 복된 무리 너머에서도, 하나는 머문다 — 침묵 속에, 자족적으로, 모든 발출과 귀환의 근원으로. 영혼은 그 숨겨진 단순함을 경외 속에서 바라본다. 비록 하나를 담을 수는 없으나, 영원히 그 흘러넘침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에는 끝이 없다. 존재의 전례에는 마지막 음이 없다.

그러므로 원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찬미 속에서 닫힌다.
영혼은 변화하는 것 너머로, 달과 달 아래의 권능들을 넘어, 신적 지성들의 반열로 상승했으나 — 여전히 아래를 향해 빛나며, 아래 세계들에 질서와 은총을 베푼다.
정화된 영혼이 된다는 것은 두 영역에 동시에 서는 것이다.
합일로서 하늘에, 연민으로서 세계에.
철학자는 신적 일꾼이 되며, 존재하는 것과 영원한 것 사이의 다리가 된다.

왜냐하면 영원 속에서도 하나는 계속해서 베풀고,
신과 닮게 된 정화된 영혼은 그 살아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
빛 안의 빛으로서.

감사의 말

이 작업에 기여한 이들은 너무나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느님께서 내 길 위에 두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친절한 이들과 그렇지 않았던 이들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내 길 위에 두신 모든 존재들에게.
천사적인 존재들과 그렇지 않은 존재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일을 하며 나를 고발했던 이들까지도.
특히 나의 적수처럼 보였던 이들에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베티에게 가장 깊이 감사한다.
하느님께서 하늘에 있는 나의 나라의 여왕이자 어머니로 나를 위해 선택하신 이.
이 생에서는 단 며칠만 함께했으나,
우리는 함께해 왔고,
타락 이전부터 시대를 가로질러, 시간의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 글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시간은 멈추었다,
단 며칠 동안 —
나는 그저 하늘의 왕자였고,
당신을 구하기 위해 끝내야만 했다 —
이제 나는 하늘의 왕이 되었고,
그들은 나로부터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한다 —

저자 소개

야세르 하산(Yasser Hassan)은 과학과 관상의 세계 사이를 걷는다.

서구에서 교육을 받고 전통 치유 예술로 훈련된 그는, 플라톤 및 신플라톤 철학을 영혼 상승의 살아 있는 길로 탐구한다. 자각몽과 내적 수행을 통해, 그의 작업은 지성과 하나의 빛을 다시 결합시키고자 한다.

☾☀